

“쇼핑계 큰손 1인 가구 잡아라”

백화점·대형마트·금융업계 ‘1코노미’ 관련 상품 연달아 출시 이마트 소형 주방 제품 127%·조각 과일도 52% 매출 신장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들이 소비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전을 비롯한 유통업계도 1인 가구를 공략하기 위한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데다, 금융업계도 젊은 1인 가구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쇼핑 ‘큰손’으로 떠오른 1인 가구=2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 1월 부터 이날 현재까지 소형가전제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3% 증가했다. 핸드 스킨 타미미가 62%나 신장했고, 소형밥솥도 48% 매출이 늘었다. 이어 에어프라이어 38%, 미니 믹서기 32%, 핸드형 무선 청소기 28% 등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형가전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같은 기간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에서 판매된 가전제품을 살펴봐도 믹서·주서기 75.2%, 토스터 57.5%, 전기포트 44.6% 등 전반적인 소형가전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소형제품들 역시 전체 매출이 무려 127.3%나 늘었고, 집에서 혼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각 과일 역시 52.4%가 늘었다.

이처럼 ‘1인 가전제품’은 월룸이나 투룸 등 작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급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으면 비싸더라도 지갑을 여는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어 유통업계에서도 이들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전시장에서의 소형가전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1인 가구 증가세-지출도 많아=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5년 28.8%에서 2016년 29.0%, 2017년 29.8%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주민등록상 인구가 145만9336명으로, 이중 30%가 1인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광주 내 ‘나홀로족’만 43만7800명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이들의 월 평균 지출이 다인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향후 1인 가구가 소비시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1인 가구 분석 보고서’를 보면 30대 1인 가구 평균소득은 266만원으로 같은 연령대 다인(多人) 가구(253만원)보다 높았다.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고 부양할 가족이 없어 오로지 자신을 위해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를 보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가구가 1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인 가구 220만원(-1.0%), 3인 가구 307.5만원(-0.8%), 5인 이상 가구 415.6만원(-1.0%) 등은 감소했다. 다인가구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코노미’ 잡아라-금융업계도 동참=혼자사는 사람을 뜻하는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인 ‘1코노미’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가전과 외식, 유통업계를 넘어 이전 혼자만의 가계경제를 꾸려가고 소비가 많은 이들을 잡기 위해 금융업계도 맞춤형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 여행비용 지출이 많은

1코노미족을 노린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하나투어 지정대리점 여행상품을 이용 시 결제금액의 3% 캐시백 추가 지급과 광주은행 카드로 해당 하나투어 여행상품 결제 및 해외 사용 시 이윤금액의 0.5% 추가 캐시백, 적금 가입기간 중 환전 시 최대 70%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8월 1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판매 8만2671회, 누적판매 계약액 5072억5300만원을 달성하는 등 1인 가구 증가에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광주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도 여행 지출이 비중 1인 가구를 잡기 위해 ‘나를 위한 나만의 적금’을 컨셉으로 한 ‘올포미 적금’을 내놨다. 적금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나고, 적립금 50만원 이상일 경우 리조트 등 무료 1박 숙박권을 준다. 롯데관광 여행 패키지 5~7%, 워터파크 할인 등을 비롯해 여행-레저 관련 보험상품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에 맞춰 본인이 정한 건강관리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웰스플러스’ 적금을 출시했고, KB국민은행도 ‘KB 1코노미 스마트 적금’을 선보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16.43 (+37.12)	↓ 금리(국고채 3년) 1.71 (-0.01)
↑ 코스닥 750.60 (+9.60)	↓ 환율(USD) 1158.50 (-2.50)



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앞장

동구청과 특별보증 협약 해 준다.

이런 협약을 위해 광주은행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3000만원을 별도 출연하였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자금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복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특별출연에 이어 동구 소재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특별출연을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여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 “5월 경기 나아질 듯”

2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201개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보다 1.4포인트 상승한 95.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2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전월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95.8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95.1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보다 1.6포인트 상승해 96.7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1.2포인트 상승한 94.5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93.6→93.8)과 수출전망(98.0→98.3)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



농협 전남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막자”

축산농가 대상 홍보 활동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역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남농협에 따르면 중국, 몽골 등 우리나라 주변 4개국에서 총 330건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는 등 국내유입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농협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과정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과정을 추가하고, 축협 및 축산관련 시설과 공동방제단 차량에 홍보용 현수막 부착, 매주 1회 이상 축협 조합원 대상 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발생국 여행 자제와 발생국 축산농장 방문 금지,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잔반) 급여 금지, 불법 해외 축산물 및 가공품 반입 금지 등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은 곧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한돈 산업의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알바생 75%,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

알바몬·잡코리아 조사

직장인은 48% 휴무

서 휴무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6.6%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수당이 지급되어서’ 일한다는 알바생도 24.6%로 4명중 약 1명 정도로 조사됐다.

한편, 직장인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8.0%가 ‘근로자의 날 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조사(49.9%) 대비 1.9%포인트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직장인(52.0%)들도 그 이유로 ‘업의 특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비스업 등 업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한다’는 직장인이 복수선택 응답률 49.5%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일한다’ (35.8%)가 뒤를 이었다. 이외 그날 일하는 대신 수당(13.0%)이나 다른 날 대체휴일(10.3%)이 지급돼 근로자의 날 일한다는 직장인도 있었다.

알바생이 복수선택 응답률 5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